

# 06

## 삼중수소 생산 위한 리튬 티타늄 산화물 폐블

발명자 박 이 현 소속 ITER 한국사업단 시스템기술부 주연구분야 TBM 기술

기술분류 : 플라즈마를 활용한 환경기술 > 폐불

TRL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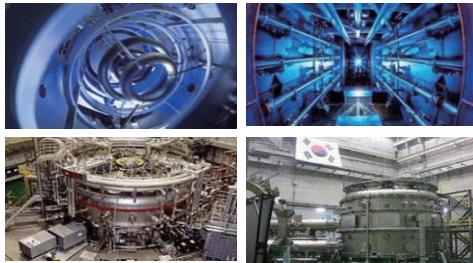
기술완성도  
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

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

지식재산권 현황

등록 리튬 티타늄 산화물 폐블의 제조 방법

10-1447893



### 기술개요

- 본 기술은 핵융합로의 연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고체형 증식재인 리튬 티타늄 산화물의 폐불을 제조
- 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1.05 이하의 구형도 및 1.5 mm 이하의 직경을 유지하는 리튬 티타늄 산화물 폐불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음

### 기술개요 대비 개선점

- 회전급법, 압출-구형화 소결법, 층-겔법 등으로 제조된 폐불은 구형도가 양호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미세 구조를 갖음

PVA 함유량/봉산 함유량/소결시간 제어 통한  
폐불의 미세 구조를 제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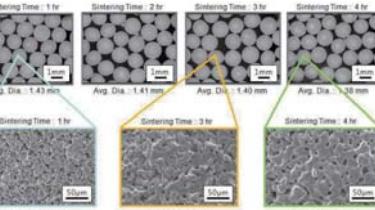
폐불의 구형도 1.05 이하/ 직경 1.5 mm 이하로 균일하게 유지

테스트 블랑켓 모듈에서 균일성을 유지하며, 삼중수소의 추출 용이

### 구현방법

본 리튬 티타늄 산화물 폐불 제조 방법은 아래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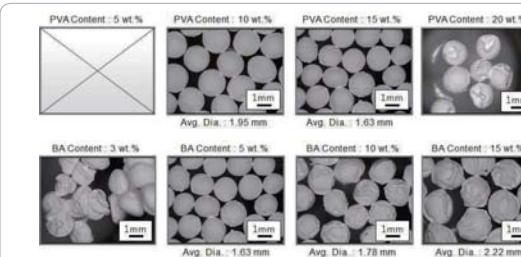
- 리튬 티타늄 산화물 분말을 바인더 및 탐이온수 혼합 용액에 혼합하여 슬러리 준비
- 글리세린에 봉산을 녹인 용액을 준비
- 준비된 용액에 혼합된 슬러리를 떨어뜨려 액적을 제조
- 제조된 액적을 건조시킨 후 소결



[ 소결 시간에 따른 폐불의 성형성 및 입자 크기 변화 ]

기술 문의  
국가핵융합연구소 기술사업화팀  
김 성 우 Tel: 042-879-5016 E-mail: swkim@nfri.re.kr  
권 순 원 Tel: 042-879-6233 E-mail: kwonsw@nfri.re.kr

### 대표도면



[ 탐이온수 및 PVA 혼합 용액에서 PVA 비인더의 함유량에 따른 액적의 성형성 ]

[ 글리세린에 봉산을 녹인 용액에서 봉산의 함유량에 따른 액적의 성형성 ]

40

### 관련이슈

- 핵융합로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초고온상태의 수소 핵 간 융합을 인공적으로 발생시켜 높은 에너지를 얻도록 한 장치로, 태양이 연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인공태양으로 불림
- 핵융합 에너지의 장점은 차원이 풍부한 대용량 발전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핵융합연료 1그램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며, 육조 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만으로 한사람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 할 수 있음
-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최종 과학적·기술적 실증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(유럽연합, 일본, 미국, 러시아, 중국, 인도)이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(ITER)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 진행

### 시장전망/기술동향

- 세계 핵융합 기술 수준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능성의 기술적 검증 단계에 도달하였고, 최근 EU·미국·일본은 2035년경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「지름길(Fast-track) 계획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음
- 재래식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2030년을 중심으로 핵융합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장은 1.5GWt 핵융합발전소 건설비용을 약 40억 달러로 산정할 때 국동 지역에서만 최소 연간 8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
- 전세계적으로 핵융합 장치시장은 연간 1조~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, 산업/의료용 가속기 시장도 연간 5조 4천억 원 규모로 연간 10% 성장을 보이는 등 주요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



### 상용화 계획

소요기간	6개월	예상비용	2억 원
추가연구 진행현황	· 폐불 성형 자동화 장치 개발 완료 · 폐불 대량생산을 위한 소결장치 구축 완료	상용화제품	핵융합로 / 원자로